

학생용 주거계획을 위한 자취생들의 주생활특성과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 경북 안동시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terns of Space Use and Housing Preferences to be used in the Housing Plan for Stud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Students in a University in Andong, Kyoungbuk -

이 미 혜 * 배 정 인 **
Lee, Mi-Hye Bae, Jeong-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tterns of space use and housing preferences to be used in the housing plan for stude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from local university students living apart from their family. We collected 272 samples and analyzed them us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hours of staying at the housing for student are 5 hours and 30 minutes(except sleeping time). Most of the time was used for 'hobby' and 'study?computer works'. The most of the students had 'a meal per day' at their housing. 2) The most preferred housing type by the students is 'studio apartment' and the next preferred is 'apartment'. The highly demanded facility is 'laundry' and the next comes 'kitchen'. 3) Those who spend more time in their housing than average show higher demand in 'kitchen' and 'balcony'. Those who spend less time in their housing show higher demand in 'storage'.

Keywords : Housing for Student, Patterns of Space Use, Housing Preferences

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대학주변을 중심으로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학생용 주거유형은 원룸형 다가구 주택¹⁾이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란 2-19가구 정도가 원룸주택 형식을 가져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위주의 주거유형이다. 이는 임대의 편리성,

건축비용의 저렴성, 범규의 탄력성 등의 이점 때문에 소규모 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무분별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주거계획시 거주자들의 다양한 주생활을 고려하기보다 대부분이 '개발업자'들에 의한 '도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이인희외, 2001), 단위 평면계획 또한 대지의 형태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고, 규모내에는 동일한 형태의 단위세대가 반복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김태연, 1999) 따라서 대학주변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학생용 주거로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시설은 갖추고 있는 반면, 내용상으로는 학생들 주거생활의 고유한 기능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심영섭, 1998). 이처럼 획일화된 학생용 주거는 거주자들과의 친밀감이 상실되며, 주택에 대한 정주의식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

*정희원, 안동대학교 강사

**정희원,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1) 대학생들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학교주변의 다가구주택을 연구자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학생주거용 다가구주택(김태연), 오피스텔(이선희), 다가구거주형 단독주택(유진상), 원룸형 다가구주택(이혜정의) 등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원룸'으로 호칭하고 있어, 이하 본 연구에서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명칭하고자 한다.

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학생용 주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생용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성준(1992)은 수도권 대학 신규 캠퍼스의 주변 대학촌과 학생주거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신규캠퍼스 주변의 현상을 파악하여 대학촌과 학생주거 개발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진상(1996)은 대학주변의 학생용 주거 실태조사한 연구로서, 법, 제도, 건축설계상의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영섭(1998)은 충남 아산시 소재 대학촌의 학생 주거환경 및 거주실태를 조사한 연구로서, 실태파악은 층수, 구조, 용도, 평면형식 및 내부설비 등의 조사와 주거만족도를 파악 하였다.

김태연(1999)은 학생용 주거의 특성과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로서, 실태조사는 대지형태, 건물배치, 건축규모, 형태, 구조, 공간구성방식, 평면형식, 진입방식, 법규상 특징 등과 학생들간의 행태와 주거의식 조사 등을 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는 6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혜정의(1999)는 학생용 주거의 평면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주거 만족도와 요구도, 이웃관계와 프라이버시 등을 조사하였다.

이선희(2000)는 충남 홍성군 소재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주거 실태(입지적측면과 건축계획적 측면, 주거생활적 측면 등)와 선호경향(주거입지, 희망주택유형, 희망하는 실내설비, 주거선택 결정요인, 기숙사 입주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처럼 최근까지 학생용 주거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학생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문제점의 대부분이 주거지환경과 건축계획 및 시공에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계획을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로 볼 때,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보다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행위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주거는 일반주거와 다른 생활특성을 가지므로, 학생들의 생활에 대응되는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주생활

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특성과 선호가 존재하므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취생들의 주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과 그들이 선호하는 주거경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학생용 주거에 대해 사용자적 관점에서 문제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앞으로 학생용 주거계획시 그들의 주생활에 대응되는 주거공간계획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취생들의 주거 내 생활특성은 어떠한가?

- (1) 주거 내 생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2) 주생활 행위의 특성은 어떠한가?
- (3) 주거 내 생활시간에 따라 주생활행위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자취생들이 선호하는 주거의 특성은 무엇인가?

- (1)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무엇인가?
- (2) 선호하는 주거 내 시설 및 공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자취생들의 주생활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특성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 (1) 주생활시간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특성에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주생활행위별 시간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시설 및 공간에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2. 표집방법

조사대상은 안동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했으며, 다시 고른 표집을 위해 성별과 학년별로 나누어 표집하는 다단계 표집을 하였다.

표집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400부 배포하여 배포된 설문지 중 326부(81.5%)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72부를 실재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진행

본 연구의 조사는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2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4. 조사도구

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생활 특성, 주거 선호경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으로는 사회인구학적·주거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조사대상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및 집기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주거적 특성으로는 학년, 성별, 부모님의 직업, 주택형태, 거주한 기간, 앞으로 거주할 기간, 소유형태, 통학시간, 통학수단 등을 파악하였다.

2) 대학생들의 주생활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선행연구(김석경, 1996)를 바탕으로 주거 내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주생활행위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주생활로는 식생활 행위, 세탁행위, 청소행위, 취미활동, 학습·컴퓨터작업, 생리위생행위 등으로 구분했으며, 각 행위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빈도, 행위시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3) 주거선호에 관한 문항으로는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주거내 선호하는 시설 및 공간에 관한 측면을 조사하였다. 선호하는 시설 및 공간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이혜정의, 1999; 조명은, 1999)를 바탕으로 정보기기설치, 수납시설, 부엌시설, 학습시설, 욕실설치, 침대공간확보, 세탁공간확보, 발코니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²⁾.

2) 주택내 시설 및 공간에 관한 문항은 인터넷과 전화설치 등의 '정보통신기기', 싱크대와 가스렌지 설치 등의 '부엌시설', 불박이장 등의 '수납시설', 책상과 책장 설치 등의 '학습시설', 욕실의 '욕조시설', '침대공간 확보', '세탁공간 확보', '발코니 설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사회인구학적·주거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주거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성별(여학생; 57.7%, 남학생; 42.3%)과 학년(1학년; 24.6%, 2학년; 26.5%, 3학년; 25.4%, 4학년; 23.5%)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부의 직업은 생산직(37.9%)이 가장 많았다

주거유형은 원룸형 다가구주택(55.1%)과 기타주거(44.9%)로 표집되었으며, 거주면적은 5-10평(66.5%), 소유형태는 월세(87.1%)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인 70.6%, 앞으로 거주할 기간은 6개월 미만(46.7%)과 6-12개월까지(41.9%)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통학수단은 도보(88.2%), 통학시간은 20분 이내(93.4%)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근교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구 및 집기의 보유상황

학생들의 주거 내 생활행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및 집기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물품으로는 입주 전 기존 설치물인 싱크대, 불박이장을 포함한 총 24가지 품목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물품들의 소유량은 다음과 같다. 자취생들이 80%이상 보유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싱크대, 밥상, 냉장고 등이었으며, 70%에서 80%미만 품목으로는 책상이며, 60%이상에서 70%미만 보유품목은 책상이었다. 그리고 50%이상 60%미만 보유품목은 옷장, 행거, 수납장, TV, 서랍장 등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및 집기는 식생활관련용품이었으며, 그 다음이 학습관련용품, 수납관련용품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거 내 생활 특성

(1) 주거 내 생활시간

하루 중 학생들이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주거 내에서는 주로 어떤 행위들을 하며, 그 행위들의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주거 내 체류시간을 파악하

기 위해 응답자들의 기상시간과 등교시간, 귀가시간과 취침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평균적으로 오전 8시 02분에 기상하여 등교는 오전 9시 26분이었으며, 오후 20시 55분에 집으로 귀가하여 취침은 01시 00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하루평균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평균 주거 내 체류시간은 12시간 31분이었으며, 이 중 주거 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시간은 학생들의 평균수면시간인 7시간 01분을 제외한 평균 5시간 30분이었다.

이는 유진상(1996), 김태연(1999)의 연구결과와 하루평균 주거 내 체류시간이 약 3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자료조사 도구의 차이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같은 조사도구로서 서울지역의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김석경(1996)의 연구결과와는 16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학생들의 하루 평균 주거 내 체류시간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대상 학생들의 주생활시간내의 생활행위의 종류와 그 행위들의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각 행위를 위생, 식사, 세탁, 청소, 취미, TV 시청, 학습, 신문보기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행위들의 소요시간은 30분부터 3시간까지를 30분 단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위생행위' (68.8%), '식사준비- 뒷정리' (56.5%), '신문 및 잡기보기' (71.6%) 등에 소요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탁행위'는 '30분-1시간미만' (40.5%)에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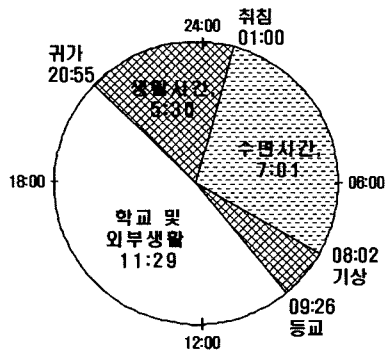


그림 1. 자취생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

표 1. 주거 내 생활행위 소요시간 (단위: (%))

행위 시간	30분 미만	30m~ 1h 미 만	1h~1h 30m 미만	1h30m ~2h 미만	2h ~2h30m 미만	2h30m ~3h 미만	3시간 이상
세면,샤워, 목욕	137 (68.8)	82 (30.1)	3 (1.1)				
식사준비 ~ 뒷정리	137 (56.5)	90 (36.4)	16 (6.5)	2 (0.8)	2 (0.8)		
세탁 행위	30 (11.5)	106 (40.5)	79 (30.2)	39 (14.9)	7 (2.7)		1 (0.4)
청소 행위	173 (64.8)	77 (28.8)	13 (4.5)	3 (1.1)	2 (0.7)		
취미 활동	50 (18.9)	61 (23.0)	61 (23.0)	39 (14.7)	9 (3.5)	13 (4.9)	32 (12.1)
TV, 비디 오 시청	81 (35.5)	36 (15.8)	23 (10.1)	27 (11.8)	16 (7.0)	11 (4.8)	34 (14.9)
학습, 컴 퓨터 작업	47 (19.2)	65 (26.5)	38 (15.5)	39 (15.9)	9 (3.7)	11 (4.5)	36 (14.7)
신문, 잡 지 보기	164 (71.6)	46 (20.1)	17 (7.4)	1 (0.4)	1 (0.4)		

또한 주거 내에서 '취미활동'은 '30분-1시간'과 '1시간-1시간30분'이 각 23.0%로 가장 높았으나 '3시간이상'에서 12.1%의 분포를 나타냈다. 'TV 및 비디오시청'은 '30분 미만' (35.5%)에서 가장 높았으며, '3시간 이상'에서 14.9%를 보였고, 또한, '학습 및 컴퓨터 작업'은 '30분-1시간미만' (26.5%)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 행위 역시 '3시간 이상'에서 14.7%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학생들이 주거 내에서 보내는 생활시간의 차이가 '취미활동', 'TV 및 비디오시청', '학습 및 컴퓨터 작업'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자취생들의 주거 내 평균생활시간인 5시간 30분 중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생활행위가 '취미활동'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세탁행위', '학습 및 컴퓨터 작업'이었다. 그리고 '위생행위'와 '식사준비에서 뒷정리', '청소행위', 'TV 및 비디오 시청', '신문 및 잡지보기' 등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김석경(1996)의 연구결과와 'TV 및 비디오 시청', '학습 및 컴퓨터 작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가구 및 집기의 소유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2) 주생활행위 특성

자취생들의 주거 내 생활행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주거 내에서 식사의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조리 및 취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자취생들이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로는 '1회 정도'가 43.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집에서 '2끼 식사'와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로 각 2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집에서 하루1끼 식사가 37%, 하루 2끼 식사가 54.3%로 나타난 유진상(199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서, 본 조사 대상의 학생들은 식사를 집에서 하기보다 외부에서 더 자주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어머니께 의존한다'가 49.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께 의존+직접조리'(15.1%), '직접 조리'(10.8%), '어머니께 의존+구입'(7.3%)의 순으로 나타나, 취사행위시 직접조리하기보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조사대상 자취생들의 식생활행위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식사준비에서 뒷정리까지의 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작업대보다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 및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용 주거에 있어서 부엌공간 계획시 냉장고 및 수납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부엌작업대는 그리 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세탁행위 및 세탁빈도 특성을 살펴보면, 세탁행위의 경우, '세탁기로 세탁한다'(55.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빨래와 세탁기 병행'(29.4%), '집에 가지고 감'(5.1%), '빨래방 이용'(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세탁행위는 타인에게 의존(7.3%)하기보다는 직접(85.3%) 행하고 있었으며, 세탁 빈도의 경우는 '1주일-2주일에 한번'(52.9%)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세탁행위시 타인의 의존정도가 31.2%(김석경, 1996), 46%(심영섭, 1998)인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조사대상의 91.2%가 직접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선희(2000)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

상은 조사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까닭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학생들은 세탁행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학생용 주거계획에서 세탁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세탁공간은 단위세대내의 개인공간에 확보할 수도 있고, 또는 건물 전체의 공용공간에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 내에서 샤워와 목욕 행위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집에서는 '샤워 정도만 한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으며, '샤워+목욕을 한다'는 15.8%, '전혀 하지 않는다'가 7.7%를 나타냈다. 참고로 학생용 주거의 '욕실공간 내에 욕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필요하다'가 41.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주거내의 목욕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욕실의 계획은 욕실공간 내에 욕조의 유무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하거나, 욕조가 없더라도 목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생활행위가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성별에 따른 주생활행위는 대부분의 행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하여 식사횟수와 세탁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행위는 집에서 샤워와 목욕을 겸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학생의 경우, 취사행위시 타인 의존도가 높으며, 세탁행위시 세탁기 사용을 전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집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주거 내 각종 생활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주생활행위는 취사행위(p<0.001), 식품구입(p<0.01), 세탁방법과 세탁빈도, 목욕행위(p<0.05) 등이었다. 식생활은 학년이 낮을수록 타인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행위는 집에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세탁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행위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주거유형에 따른 주생활행위로는 식사행위, 목욕행

표 2. 일반적 특성과 주생활행위

행위		식사 횟수	취사 행위	세탁 행위	세탁 빈도	목욕 행위
사 회 인 구	성별	여/횟수↑ 15.670***	남/의존 37.185***	남/세탁기 18.672***	여/빈도↑ 16.188**	여/목욕 19.727***
	학년		학년↓ /의존 45.948***	학년↑ /세탁기 22.907*	학년↑ /빈도↑ 23.026*	학년↑ /목욕 13.627*
주 거	주거 유형	원룸/횟수↓ 23.914***				기타/행위x 15.902***

*p<0.05 **p<0.01 ***p<0.001

위에서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다. 원룸형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식생활행위가 기타주거형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적게 행해지고 있는 반면, 목욕행위는 원룸형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타주거형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주거 내 생활시간과 주생활행위특성

대학생들이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에 따라 주생활행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을 상, 중, 하 3개의 집단³⁾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3과 같다.

생활시간에 따른 주생활행위로는 식사횟수(p<0.001), 취사행위와 목욕행위(p<0.01), 청소행위(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주거내 생활시간이 많은 상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식사횟수가 많았으며, 취사행위시 직접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청소빈도도 높으며, 샤워와 더불어 목욕행위도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생활시간이 적은 하집단에서는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취사행위는 타인의 의존도가 높았고, 목욕행위는 샤워정도만 행해지고 있으나, 집에서는 목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의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해 있었다.

3. 주거 선호경향

(1) 선호하는 주거유형

조사대상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주거유형에서 생

3) 생활시간을 빈도분석 한 후 평균값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생활시간이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을 상집단, 생활시간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집단을 중집단, 생활시간이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하였다

표 3. 평균 주생활시간과 주생활행위

행위		식사 횟수	취사 행위	청소 행위	목욕 행위
사 회 인 구	상집단	1회, 2회	의존, 직접	매일, 2-3일	샤워,+목욕
	중집단	1회	의존+직접	2-3일, 1주일	샤워
	하집단	식사x	의존, 구입	2-3일, 1주일	샤워, 목욕x
통계값		44.540***	28.376**	16.959*	14.461**

*p<0.05 **p<0.01 ***p<0.001

활하고 싶은지를 파악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원룸형'으로 응답자의 43.0%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형 주거시설'(26.5%), '집에서 통학'(16.5%), '기숙사'(13.6%), '하숙'(0.4%)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이 '원룸형'(66%)이라고 한 김태연(1999)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선호하는 비율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또한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선희(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집단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호주거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p<0.05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은 '원룸형'(53.9%)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나, 여학생들은 '원룸형'(35.3%)과 '아파트형'(28.8%), '집에서 통학'(21.2%) 등 비교적 다양한 선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이 '원룸형 주거'를, 여학생은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더 선호한다는 이선희(2000)의 연구결과와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유형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원룸형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경우,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원룸형'(36.7%)과 더불어 '아파트형 주거'(31.3%)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주거 내 시설 및 공간의 선호

자취생들이 선호하는 주거 내 시설 및 공간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결과, 주거 내 선호하는 시설 및 공간으로는 '세탁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평균 4.48

표 4. 일반특성별 선호 주거유형 (단위: %)

변인		집 통학	원룸형	기숙사	아파트형	계	
사회 인구	성별	남	10.4	53.9	12.2	23.5	100
		여	21.2	35.3	14.7	28.8	100
	값	$\chi^2 = 10.956$ df = 3 p < 0.05					
· 주거	주거 유형	원룸	16.7	36.7	15.3	31.3	100
		기타	16.5	51.2	11.6	20.7	100
	값	$\chi^2 = 6.861$ df = 3					

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부엌시설’(4.14)과 ‘정보기기 설치’(4.07)였으며, 그리고 ‘수납시설’(3.96), ‘학습시설’(3.93), ‘발코니설치’(3.51), ‘욕조시설’(3.14), ‘침대공간 확보’(2.80) 등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거 내 ‘세탁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공동세탁실 이용에 대한 불만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실제 학생들의 세탁기 보유율(41.9%)에 비해 세탁행위시 세탁기 사용율(85.3%)이 높게 나타나 학생용 주거내 공동세탁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세탁실 확보에 가장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세탁실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공동세탁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공동세탁실의 크기와 수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공동세탁실의 충분한 면적확보 또는 공동세탁실을 2개소 정도로 설치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혜정의, 1999).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시설 및 공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5 와 같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수납시설’, ‘학습시설’, ‘세탁공간 확보’ 그리고 ‘발코니설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들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요구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년별에 있어서, 저학년은 ‘학습시설’을, 고학년에서는 ‘침대공간 확보’, ‘세탁공간 확보’를 더 요구하고 있었다. 주거유형별에 있어서는 주거시설 및 공간 선호의 변인 대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수납시설’, ‘침대공간 확보’, ‘세탁공간 확보’, ‘발코니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기타주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습시설’과 ‘욕조시

표 5. 일반특성별 선호주거시설

변인		선호	수납 시설	학습 시설	욕조 시설	침대 공간	세탁 공간	발코니
성별	남		3.73	3.96			4.34	3.25
	여		4.13	4.27			4.58	3.92
	t값		23.416***	3.908**			9.475**	5.40***
학년	1			4.13 B		2.31 A	4.34 A	
	2			4.06 B		3.07 B	4.35 A	
	3			3.86 AB		3.12 B	4.62 B	
	4			3.68 A		2.67 B	4.61 B	
	F값			3.318*		6.112***	4.265**	
주거 유형	원룸		4.13	3.83	2.97	3.07	4.58	3.69
	기타		3.76	4.06	3.34	2.48	4.35	3.29
	t값		3.165**	2.007*	2.224*	3.844**	2.943**	3.148**
거주 기간	1		4.05 B		3.56 B		4.49 B	3.51 B
	2		3.96 B		3.04 AB		4.56 B	3.72 B
	3		3.35 A		2.96 A		4.19 A	3.08 A
	F값		6.344*		3.364*		3.133*	3.205*
거주 예정 기간	1		4.09 B		3.35 B	3.97 C		
	2		3.92 AB		2.99 B	2.89 B		
	3		3.61 A		2.81 A	2.04 A		
	F값		3.249*		3.185*	20.318***		
가구 유무	유			4.02		2.30		3.95
	무			3.73		2.99		3.40
	t값			2.303*		4.40***		3.465**

*p<0.05 **p<0.01 ***p<0.001

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거주기간별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이 거주기간이 긴 집단보다 주거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그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예정기간별의 경우, 이 항목 역시 거주예정기간이 짧은 집단이 거주예정기간이 긴 집단보다 주택내 시설 및 공간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주거시설 및 공간에 대한 요구가 해당 가구소유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습시설’(p<0.05), ‘침대공간확보’와 ‘발코니설치’(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책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책상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발코니설치’의 경우, 발코니가 있는 집단이 앞으로 주거에서도 ‘발코니 설치’를 더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공간확보’에 있어서, 침대를 소유하지 않

은 학생들이 침대를 소유한 학생들보다 '침대공간 확보'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방의 규모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방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방의 크기에 '만족한다'가 33.1%인데 비해 '불만족하다'가 46%였다.

4. 주택내 생활특성과 주거 선호경향

(1) 주생활시간에 따른 주거선호

주생활시간에 따라서 주거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주생활시간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주거유형과는 교차분석 하였으며, 선호주거시설 및 공간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다.

먼저, 주생활시간에 따른 선호하는 주거유형에는 $p < 0.01$ 의 유의수준을 보였는데, 대체로 '원룸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으로 중, 상집단에서는 '아파트형'을, 하집단에서는 '기숙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은 주생활시간에 따른 주택내 선호하는 시설 및 공간을 살펴보면, '수납시설'과 '발코니설치' ($p < 0.05$), '부엌시설' ($p <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수납시설'은 하집단에서, '부엌시설'은 상집단에서 요구도가 높았으며, '발코니설치'는 중, 상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주생활행위별 시간과 주거시설 및 공간 선호

주거시설 및 공간의 선호는 주생활행위별 시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비교 한 결과 표 7과 같다.

먼저, 세면행위 시간은 '욕조시설'에서 $p < 0.01$ 의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며, 세면행위의 시간이 짧은 집단보다 긴 집단에서 '욕조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청소행위는 청소행위 시간이 긴 집단

표 7. 주생활시간^(a)과 선호 주거시설설비

시간	선호 욕조시설		시간	선호 침대공간		세탁공간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세면 행위	1집단	2.76	청소 행위	1집단	2.66	4.41
	2집단	3.30		2집단	3.04	4.63
	F값	3.13**		F값	2.315*	2.696**

시간	선호	수납시설		욕조시설		세탁공간		발코니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세탁 행위	1집단	3.60	A	3.70	B	4.10	A	2.90	A
	2집단	3.98	B	3.10	A	4.51	B	3.58	B
	3집단	4.15	B	2.93	A	4.70	B	3.63	B
	F값	3.070*		3.295*		8.986***		5.560**	

시간	선호	학습시설		욕조시설		침대공간		발코니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TV, 비디오 시청	1집단	4.15	B	3.37	B	2.54	A	3.54	B
	2집단	4.00	B	3.20	B	2.73	A	3.64	B
	3집단	4.09	B	3.18	B	3.00	A B	3.76	B
	4집단	3.51	A	2.58	A	3.27	B	3.12	A
	F값	4.861**		3.454*		3.699*		3.015*	

시간	선호	정보기기		욕조시설		세탁공간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취미 생활	1집단	3.91	A	3.42	B C	4.31	A
	2집단	3.98	A B	2.98	AB	4.66	B
	3집단	4.27	A B	2.88	A	4.65	B
	4집단	4.33	B	3.73	C	4.56	B
	F값	3.028*		4.989**		5.711***	

시간	선호	정보기기		학습시설		침대공간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학습 생활	1집단	4.02	A	3.81	A	2.92	B
	2집단	3.89	A	3.83	A	2.97	B
	3집단	4.38	B	4.06	A B	2.74	A B
	4집단	4.55	B	4.26	B	2.34	A
	F값	7.718***		4.759**		3.784*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 주생활시간과 선호 주거유형 및 시설

선호 시간	주거 유형	선호 시설					
		수납시설		부엌시설		발코니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상집단	① 원룸	3.80	A	4.41	B	3.64	B
	② 아파트						
중집단	① 원룸	3.96	AB	4.05	A	3.63	B
	② 아파트						
하집단	① 원룸	4.18	B	3.99	A	3.24	A
	② 기숙사						
통계값		23.151**	3.488*	6.250**		4.159*	

* $p < 0.05$ ** $p < 0.01$ *** $p < 0.001$

4) 주생활행위별 시간은 사례수가 고른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자 임의대로 4개의 집단 즉, 1집단 = 30분미만, 2집단 = 30분~1시간30분미만, 3집단 = 1시간30분~2시간30분미만, 4집단=2시간30분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차이검증 시 사례수가 없거나 매우 적은 집단은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이 짧은 집단보다 ‘침대공간 확보’와 ‘세탁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탁행위 시간에서는 세탁행위 시간이 많을수록 ‘수납시설’, ‘세탁공간 확보’, ‘발코니 확보’에 요구도가 높았으나, 그에 비해 ‘욕조시설’은 세탁행위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TV, 비디오시청 시간의 경우, TV 및 비디오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에서는 ‘학습시설’이나 ‘욕조시설’, ‘발코니 설치’에 대한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침대공간확보’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미생활 시간의 경우, 취미생활 시간이 길수록 ‘정보기기설치’와 ‘욕조시설’, ‘세탁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습생활 시간에 있어서는 학습생활 시간이 많을수록 ‘정보기기 설치’와 ‘학습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침대공간확보’의 요구도는 낮았다.

IV. 요약 및 결론

지방대 자취생들의 주생활특성과 주거선호경향에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취생들의 주생활특성을 주거 내 생활시간과 주생활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취생들의 주생활시간은 취침시간을 제외한 이들의 평균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5시간 30분이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위로는 ‘취미활동’과 ‘학습 및 컴퓨터 작업’ 등이었다. 주생활행위특성에 있어서, 집에서의 식사빈도가 하루 ‘1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취사행위는 타인 의존도가 높았으나, 세탁행위는 직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주생활시간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각 행위들의 빈도도 높았다.

주생활행위 특성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학년, 주거유형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식사행위와 세탁, 목욕행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원룸형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타주거형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식사횟수는 낮았으나, 목욕행위의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2. 자취생들이 선호하는 주거의 특성을 주거유형과

주거 내 시설 및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취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원룸형 다가구주택’(43.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형 주거시설’(26.5%)이었다. 특히 여학생과 원룸형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경우, ‘원룸형’ 다음으로 ‘아파트형 주거’에서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거 내 시설 및 공간은 ‘세탁공간 확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엌시설’, ‘정보기기 설치’, ‘수납시설’ 등의 순이었다.

3. 주거 내 생활시간에 따른 선호주거유형에 있어서, 대부분이 ‘원룸형’ 주거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나, 주거 내 생활시간이 많은 상집단은 ‘아파트형’을, 하집단은 ‘기숙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시설 및 공간에 있어서, 상집단은 ‘부엌시설’과 ‘발코니 설치’를, 하집단은 ‘수납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주생활행위별 시간에 따른 주거시설 및 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정보기기설치’는 취미생활과 학습하는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그 요구도가 높았으며, ‘학습시설 설치’는 TV시청과 학습량이 적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침대공간 확보’는 청소와 TV시청, 학습시간 등이 많은 집단에서 그 요구가 높았으며, ‘세탁공간 확보’와 ‘발코니 설치’는 세탁행위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욕조시설’은 세탁행위 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그 요구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자취생들의 주생활행위로 볼 때, 식생활 공간에는 부엌작업대의 크기를 확충하기보다는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 및 수납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며, 욕실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취생들의 주생활행위는 주생활시간과 성별, 학년별, 주거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으므로 주거계획시 성별 주거영역 구분을 설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⁵⁾ 성별구분의 필요성에

5) 성별구분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심영섭(1998)의 조사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조사에 의하면 성별 주거영역 구분에 대해 주택(동)별 구분이 23%, 층별구분이 21%의 선호를 나타내고 있었다.

관한 선행연구로 심영섭(1998)의 조사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조사에 의하면 성별 주거영역 구분에 대해 주택(동)별 구분이 23%, 층별 구분이 21%의 선호를 나타내고 있었다.

2.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원룸형 다가구 주택'이었다. 또한 가장 요구하는 주거내 시설 및 공간은 '세탁공간 확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엌 시설', '수납시설', '학습시설'이었다. 따라서 학생용 주거는 일반주거와 달리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학생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수납용품'과 '학습용품'은 가능하면 불박이로 제공한다거나, 또한 개별보다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세탁기 등은 가능하면 공용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학생들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갖는 공간계획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는 자취생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이들이 바라는 바를 적정가격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취생들의 주거선호 결과는 단위주거공간 계획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자취생

들을 대상으로 주거선호연구 범위를 주거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단위공간의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석경(1996), 원룸형 주택의 주생활특성과 난방계획연구, 연세대 석논.
2. 김태연(1999), 학생주거용 다가구주택의 특성과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3. 심영섭(1998), 지방대학 대학촌의 학생주거 실태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3호, 통권 113호.
4. 유진상(1996), 대학주변의 학생용주거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전남대 석논.
5. 윤복자의(1999), 신세대 소비자, 대학생이 주거와 주거입지환경 선호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3호, 통권125호.
6. 이미혜외(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 4호.
7. 이선희(2000), 지방대학교의 학생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8. 이인희외(2001), 다가구주택의 배치와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2호.
9. 이해정의(1999), 대학주변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 2호.
10. 장성준(1992), 수도권대학 신규캠퍼스 학생주거와 대학촌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7호, 통권45호.
11. 조명은(1999),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신세대 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연구, 연세대 박논.